

10-12-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빌립보서 2:1-16

말씀제목: 그리스도의 날(휴거)을 바라보는
신부의 삶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대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가 디도에게 편지할 때,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딤후 2:13)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날을 위하여 자신이 어떤 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성도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고전 1:8-10)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 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Rejoice)하러 함이라(빌 1:6,10,11;2:16)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빌 2:12)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받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받은 구원의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받을 상을 바라보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일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받은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요 10:28,29)

사도 바울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롬 8:33-39)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어떤 사람도 휴거의 날을 미리 정해 놓고 그날만을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 날은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날이니 그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책망할 것이 없도록 회개하며 준비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준비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휴거를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악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살전 5:14-24)

한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 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 2:1-4)

아멘! 할렐루야!